구례·보성·곡성 공기 가장 맑다

산림연구소 오존 측정…타지역 보다 환경 쾌적

전남 월평균 19.0ppb로 전국 26.6ppb보다 낮아

구례·보성·곡성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산촌마을의 대기중 오존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년동안 도내 산촌마을 11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중 오존농도를 매월 조사한 결과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저치인 월평균 19.0ppb(1ppb1t당 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26.6ppb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전남지역 산촌마을이 다른 곳에 비해 살기좋은 쾌적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귀농생활과 퇴직후 은퇴생활에 최적지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매연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 빛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이다. 두통, 충혈,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기관지염, 심장병, 천식, 폐기종 등의 질환을 일으킬 뿐만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가 14.4ppb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17.0ppb), 곡성군 겸면 대명리(17.8ppb) 등의 순으로 오존농도가 낮아 전남 동부권이 청정지역임을 입증했다. 이밖에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가 17.8ppb를 기록하는 등 전남의 모든 조사지역이 전국 평균(26.6ppb)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유일하게 20ppb 이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22.8ppb), 충북(22.9ppb), 경북(23.5ppb)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전남의 오존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원인은 타 도에 비해 비교적 공단지역이 적고 농·산촌지역이 많아 직접적인 오염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도내 산촌마을의 산성비 등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산림 청정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 '별량 개랭이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확정

5년간 국비 55억 지원

순천 '별량 개랭이 권역'이 최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확정됐다.

순천시는 지난 18일 개령마을 테마관에서 개랭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확정을 기념하고 하루 50여명의 체험객이 투숙할 수 있는 황토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별량면 대룡리 3개 자연마을에서는 17명으로 권역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 전체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확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사업확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총 55억원의 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개랭이 권역은 ▲고들빼기·동백 가공시설 ▲고로쇠·동백 군락지 정비 및 조성 ▲마을 안길 생태하천 정비 ▲오토캠핑 산림욕장 ▲산악자전거 ▲전통예절 효체험 청소년 캠프장 등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별량면 대룡리는 낙안읍성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거쳐가는 농촌관광 중간 지점으로 순천만이 보이는 제석산, 동화사가 있고 청정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주민들은 고들빼기를 대표 특산물로 개발했으며 개랭이 자연밥상과 고들빼기 김치 담그기 체험, 고들빼기 두부 치즈 만들기 체험, 쑥모시 개떡 만들기 체험 등을 상품화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친환경 농업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3명이 부녀회장과 함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지 농촌마을을 전국 어느 마을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소득화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포스코, 사회적 기업 이익 환원

주식 공익재단 무상출연 MOU

포스코 광양제철이 사회적기업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무상 출연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공도약을 위한 삼자간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주)포스플레이트(대표 송재천)에 출자한 지분 중 20%를 공익재단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무상 출연해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했다.

또한 (주)포스플레이트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광양시는 (주)포스플레이트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포스코는 ㈜포스플레이트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외주작업 및 기술지원을, (주)포스플레이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포스코 패밀리사인 ㈜포스플레이트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서 설립 의의와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는 행사를 가졌다.

㈜포스플레이트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시편 가공 및 후판제품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해 7월부터 조업에 들어간 ㈜포스플레이트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난 1월 26일에는 1일 7500t의 목표량을 초과해 9173t이라는 최고 출하량을 기록했다.

한편 포스코의 사회적 기업에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포스위드와 정년퇴직자 등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스에코하우징, 그리고 새터민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송도에스이 등이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토란 명품 브랜드화

郡, 생산량 늘리고 포장재 등 개발

곡성군이 올해부터 멜론, 잎들깨, 한우와 함께 토란을 명품브랜드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곡성토란은 60ha에서 900여 t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20%에 이른다. 특히 군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죽곡면에서는 2월 하순부터 파종에 들어가 3월 하순이면 파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군은 토란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토란 재배농가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작장해방지 ▲친환경재배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토란은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로서 그동안 수량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연작장해 방지사업은 석회질소 등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친환경재배 사업은 농약을 쓰지 않고 잡초와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사업으로 토란의 학교급식 공급이 목적이다.

토란 포장재 개발사업은 그동안 규격화된 포장재가 없어 주로 중간상인에 의한 포전매매(밭떼기)나 경동시장으로 출하되는 점을 개선하고 토란을 경매시장에 상장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추석전에 출하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멀칭재배를 통해 관행 재배보다 30일 일찍 파종해 추석전에 수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양 마동저수지 산책로 개방

광양시는 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내에 마동저수지를 일주하는 1.7㎞의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마동 웰빙 레포츠 단지를 33만6000㎡가 계획돼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주변 일부는 개발돼 있었으나 산책로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오던 중 공사비 1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번에 준공된 산책로는 마동 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주변을 일주하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친환경소재인 마사토를 깔아 공사비 절감은 물론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했다.

또한 산책로 주변과 저수지 사이에 정자 3개소와 벤치, 야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 34개소를 설치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중마동 시가지 중간에 위치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마사토 포장 위를 산책하며 사색에 잠긴 낭만적인 여가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북

과대청사 놔두고 수십억 들여 사무실 물색

전북도 '전발연' 이전 눈총

전북도가 남는 도청사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산하기관을 매각대상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안정적 연구환경 확보 등을 위해 전북 발전연구원을 매각대상인 옛 축산위생연구소로 6월께 이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북도청 건물의 적정면적은 현재(8만5913㎡)의 70% 수준인 6만여㎡에 불과해 2007년 신축 이후 그동안 총 15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됐고 '공무원 1명당 에너지소비율 전국 1위 청사'란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재정력 지수는 0.4로 자체 수입으로는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1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국고보조나 지방채 발행 등 외부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출연기관인 전발연을 남는 공간에 입주시키지 않고 오히려 매각대상인 건물을 팔지 않고 리모델링 비용(10억원)까지 들여 이전을 추진해 이중낭비라는 지적이다.

매각 대상인 옛 축산위생연구소를 팔면 45억 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하고 10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절약할 수 있어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이중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구나 도청 18층에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18층)이 이달 말 군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발연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또 다른 예산을 들여 2층의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을 모조리 18층으로 이전하고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청의 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명에 불과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청사 경비문제로 폐쇄해 도서관 확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비효율적인 공간 재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옛 축산연구소 건물로 전발연을 이전하는 이유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와 '외부 전문가와 연계 강화'를 꼽고 있다.

도청과는 별개의 건물에 있어야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유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청사가 서전주 나들목 부근에 있으면 다른 지역 전문가들의 왕래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발연과 공무원들의 업무가 달라 고유업무 수행에 별지장이 없는 데다 이전하려는 옛 축산연구소와 도청과 거리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아 다른 지역 전문가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 역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전발연이 보유한 3만권의 책을 도청 18층으로 옮기면 '도청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별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궁색한 변명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전자도서관의 책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안전이 우려되면 이전할 때 불필요한 책을 정리하면 된다"면서 "책 때문에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무너져서 이사 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재정여건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라는 눈총을 받는 전북도가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구 노력은 뒷전인 채 이중의 낭비만 부채질한다면 재정난은 만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역민들의 중론(衆論)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홍단풍으로 물들 가을을 꿈꾸며…

순창군 공무원들이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8일 쌍치면 등 야산에 홍단풍을 심고 있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강천산 주변에 홍단풍 2만3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 통합축제 내달 8일 개최

24일까지 24개 축제 다채

군산시는 봄철에 열리던 각종 축제를 올해부터 '2011 군산 새만금 축제'로 통합해 개최한다.

'새만금으로 하나 되는 군산, 그 화려한 비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 통합축제는 다음달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지난해까지 벚꽃 개화시기에 시작되던 벚꽃예술제와 수산물축제,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축제 행사를 하나로 묶었다.

올해 축제는 다음달 8일 거리 퍼레이드 및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행사, 군산 수산물축제, 군산시 복지·평생학습 EXPO 등 총 24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거리퍼레이드 및 개막식은 축제 첫날인 4월 8일에 백년광장에서 군산상고, 은파관광지까지 군산의 과거·현재·미래 비전을 퍼포먼스로 연출한다.

은파관광지에서는 예술프로그램 및 상설 무대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군산 수산물축제'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해망동 수산물센터 일원에서 풍물패 길놀이와 살거리 행사, 먹거리 행사, 가족형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군산시 복지·평생학습 EXPO'는 4월 22·23일 월명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시민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 작품전시, 경진대회 등이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강천산 온천수 먹는물 개발 가능성"

순창군 물학회 심포지엄

순창 강천산 온천수가 국내 최고의 온천수 생수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강인형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물학회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강천산 음용온천수 개발방안 연구용역'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강천산 온천수를 음용한 결과 혈액내 활성산소를 제거, 인체의 건강유지와 장수(長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연세대 이규재 교수(한국물학회 회장)는 "이번 연구에 근거해 향후 순창 강천산 온천수가 생수로 개발될 경우 한국의 온천수산업, 생수산업,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신

道, 21일 '청정 전북축산 실천 결의대회'

전북도는 21일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해 농축협,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축산관련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clean) 전북축산 실천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날 결의대회는 결의문 채택과 청정 축산운동 세부실천계획을 낭독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깨끗한(CLEAN) 축산환경 조성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축장 등 축산관련 모든 기반시설은 매주 토요일을'청정 운동의 날'로 지정해 청소 및 소독을 생활하며, 축사시설(농가)은 주 2회(월·목요일) 소독으로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시민 한 소리하기' 협약

전주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센터에서 '2011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판소리 교육 추진 평생학습기관 14개소, 학교 4개교와 협약을 통해 '1시민 1 소리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시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는 다양한 평생학습기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1도시 1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정읍 천변 왕벚꽃 내달 5일 절정

정읍시내 천변의 왕벚나무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5일가량 빠른 다음달 5일부터 개화를 시작해 12일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또 호남고속도로 정읍 IC에서 내장산 국립공원에 이르는 16km의 천변 길에도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워 그림 같은 봄 풍경을 자랑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제기간에 인파가 몰리면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축산지역'인 정읍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생태하천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축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부동산 행정 일원화' 시범지역 선정

남원시가 오는 2014년까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장의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시스템 개발비 32억 ▲시범 사업지역 DB 구축비 10억 등 소요 경비를 전액 국비지원과 사업단의 각종 업무지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